

#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에 기반한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특성

이 지 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조교수

## Body Modification in Fashion Illustr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Corps sans Organes' of Deleuze

Jee-Hyun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투고일: 2011. 6. 23, 심사(수정)일: 2011. 10. 11, 게재확정일: 2011. 10. 14)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body modification in fashion illustration based on 'Corps sans Organes' of Deleuze. An argument about the changes of ideal body to define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imes has lasted for a long time. Therefore, analyzing body modification in fashion illustration to express the ideal beauty could be effective motives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ideal bodies related with socio-cultural meanings, an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overall trends of modern fashion illustration. To classify the types of body modification, the concept of 'Corps sans Organes' of Deleuze was used as an analyzing tool. As the final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body modification c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fragmentation of bodies, the pastiche of bodies, and the abstraction of bodies. First, in the fragmentation of bodies, which is related with flexibility, pluralism, and subjective views on body, the bodies were separated as molecules. Second, the elements of pastiche of bodies could be subdivided into five sub-groups; sex, plants, animals, texts and figure, and machines. The pastiche of bodies was used to extend the limitation of human capabilities and to reinterpret the human identities. Last, the abstraction of bodies based on contingency, indeterminacy, and subjective associations could be related with the nomadic and indefinite body images. The body modification could be considered as the context of nomadism, indeterminacy, and virtuality of modern-times, and it would be the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body modification in fashion illustrations.

Key words: body modification(신체변형), corps sans organes(기관 없는 신체),  
fashion illustration(패션일러스트레이션)

## I. 서론

패션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범주로, 시대의 이상적 패션과 신체의 이미지를 심미적이며 조형적인 방법을 통해 표현한다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특히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인체의 재현적 신체미의 표현을 넘어서 이상적 신체미를 극대화하고 이를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패션디자인, 패션 필름 및 광고 등에 비해 시대의 이상적 신체관을 직접적이며 강력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신체의 변형, 의도적인 모호함, 생략 등 신체의 다양한 표현은 신체의 상징성과 이상적 신체의 변화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되는 함축적이며 상징적 신체 특성의 이해는 시대의 이상적 신체미와 이를 통해 발현되는 관념적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신체는 단순히 인체의 재현적 대상을 넘어서 사회적 권력과 지위의 상징체, 욕망의 생산체로서 확대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 현상을 철학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신체에 대한 관념들 중 하나인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은, 분자화된, 리즘적 구조를 가진 기계로의 신체, 긍정적 욕망의 생산기계로의 신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들뢰즈가 제시한 '기관 없는 신체'는 생산적이며 긍정적 주체로서의 신체라는 새로운 해석 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현대 사회·문화의 특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개념 신체를 해석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의 구조적, 관념적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적 관점에서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신체 변형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조형적 측면의 신체변형 현상 외의 사회·문화적 측면의 근원적 원인과 신체변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패션이미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를 기반으로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신체 변형 현상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표현 방법 및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 이후 발행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집들<sup>1)</sup>에서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을 수집하고 선행연구와 문헌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유형 분류를 하였다. 수집된 사례들은 총 205개였으며, 선행 연구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각 유형별 신체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를 분류, 분석하였다. 분석의 단계에서는 각 사례들에 내재된 신체 변형의 공통된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표현되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 변형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과 흐름을 철학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 표현기법의 변화와 방법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욕망

### 1. 현대 신체론과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

신체에 대한 관심과 이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구 예술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보다 본격적인 담론의 대상이 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상과 여성 신체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적 관점의 대두, 정신과 신체를 이원적 구조로 보았던 서구의 전통적 관념과 달리 정신과 신체를 일원론적 입장에서 보았던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의 등장에 영향을 받았다.

플라톤 이후 신체는 정신보다 열등한, 권력과 욕망의 도구와 대상으로 통제되거나 사용되는 불완전한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니체는 욕망을 일으키는 주체로 신체를 보았고, 미셸 푸코는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생산하는 '미시 권력(微視 權力)'의 장으로 신체를 보았으며 부르디외는 신체를 계급의 상징으로 보고 이상적 신체의 계발과 운용은 사회적 지위 획득 및 권력, 자본의 생산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sup>2)</sup>

이 중 미셸 푸코는 수동적인 권력의 도구로서의 신체가 아닌 주체화된 신체를 주장하였으며 신체로 부터의 쾌락 산출과 자제, 지식 및 준거기준과 같이 신체에 작용하는 훈육 권력의 작용을 통해 생산되는 권력을 이야기하였다.<sup>3)</sup>

사회적 권력과 자본의 도구적 측면의 신체보다 내적, 외적 욕망으로의 신체라는 대상에 주목한 사람은 자크 라캉이다. 라캉은 인간이 대타자의 욕망을 생산하고 향유하며 신체는 이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도구라고 보았다. 그러나 라캉이 주목한 욕망의 상징으로서의 신체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충동과 좌절 때문에 스스로 분절되고 파편화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sup>4)</sup> 라캉의 신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과 욕망, 신체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스피노자는 보다 포괄적 개념의 능동성을 가진 자기보존의 욕구(conatus)로 충만한 신체, 무한히 생성하는 긍정적 욕망의 신체를 설명하였다. 스피노자는 긍정적이며 생성하는 욕망의 해방을 위해 신체는 변용되며, 소통하려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고 능동적 변용의 능력을 통한 부분들의 결합체가 바로 신체라고 정의하였다.<sup>5)</sup>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주체성을 가진, 능동적으로 변용되는 신체의 개념을 계승하였다. 그는 잔혹연구를 개발한 초현실주의 예술가 아르토(A.Artaud)의 '기관 없는 신체'<sup>6)</sup>라는 개념을 빌려와 내적 연관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신체를 부정하는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기관과 신체사이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원리에 의해 기관들이 상호작용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기관의 구성, 기관의 기능 등이 유동적이며 파편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생성해 나가는 기계와 같은 신체를 의미한다. 즉,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변용의 잠재성(virtuality)을 내재한 신체로, 생성하는 욕망에 의해 현실과 외양에 고정되지 않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자유로운 신체를 이야기 한다.<sup>7)</sup> 가변적 잠재성을 가진, 유기적이지 않은 신체는 그 단절되고 파편화된 부분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생성의 힘을 가진 신체인 것이다.

## 2. 들뢰즈의 욕망과 신체

들뢰즈는 '기관 없는 신체'에서 인간의 신체를 욕망에 따라 파편적이며,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기관들로 이야기하였다. 윤성우<sup>8)</sup>는 들뢰즈의 욕망은 욕구와는 다른 것으로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며 탐색해나가도록 하는 힘'으로 정의하였으며, 욕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생산하는 기계와 같은 것으로 무의식은 이러한 욕망을 만드는 힘이 된다고 하였다. 보그, R<sup>9)</sup>는 들뢰즈의 신체론에서 언급되는 인간의 신체는 욕망하는 기계들의 장이며, 여기에서 기계란 신체의 모든 기관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면서 체계에 예측되지 않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절단되었다가, 접속되고, 분열되며, 생산하는 자유로운 기계의 특성을 가졌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기관 없는 신체는 욕망하는 기계를 무수히 만들어내는 내재성을 지닌 것으로 들뢰즈는 이를 추상기계로 이름 붙이고, 추상기계의 자유로운 욕망으로 신체나 기관이 새롭게 변화되며 생성된다고 하였다.<sup>10)</sup> 추상기계는 기관 없는 신체가 가진 절단과 재배치의 속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탈코드화와 탈영토화라는 특성으로 정의되며 형식화되지 않은 질료들로 이루어지고 형식적이지 않은 기능들로 이루어진다.<sup>11)</sup> 추상화된 기계는 다변성과 탈영토화를 통해 끊임없이 다중적 욕망을 만들어 무수히 많은 욕망하는 기계가 되게 한다. 즉, 기관 없는 신체는 추상화된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질료이며 내용, 형식, 실체 등의 탈코드화, 탈영토화 작업을 통해 무수한 욕망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들뢰즈의 욕망론은 신체의 욕망 자체를 결핍이나 소모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닌 생산의 대상과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본 것이다. 욕망은 "어떤 활동을 위해 만나고 접속하는 신체들에 속하는 것이고, 그 신체들에 접속하여 작동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그러한 작동을 통해 무언가를 생산하는(산출하는) 그런 결정적 요인"<sup>12)</sup>이자 능력 또는 힘을 가리킨다.

따라서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단절과 지속적 움직임을 통해 관계성을 만들고 확장하며 변화하는 것이며, 변용되는 신체는 끊임없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욕망의 기계로서 신체는 분절되고 파편화된다. 절단 없이 연결과 재배치가 불가능한 것처럼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비연속적 기계들의 절단이 연속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된다. 또한 기계화된 신체에서 절단되고 분절된 기계들은 재사용이 아닌 재배치, 대체 등의 방법으로 연결되어 욕망을 생산한다.

김석<sup>13)</sup>, 연효숙<sup>14)</sup>의 연구에 따르면 들뢰즈의 욕망하는 기계는 직접적, 생산적, 무매개적인 것으로 유토피적 시각에서 이해되는 것이며, 주체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욕망하는 기계는 고정적인 물적 통합성을 가진 대상과 달리 '~되기'와 같은 가변적인 분자성을 가지며 리즘적 확장성을 갖는다.

즉,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신체가 가진 질서, 통일성, 유기체적 특성을 부정하고 이를 기계적 속성으로 대체하며, 부속물에 의한 다변적 분자적 특성을 부여하여 확장되며, 개별화되는 다중적 욕망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욕망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이 신체의 분절과 파편화를 통한 다변적, 다중적 욕망의 생성은 현대 패션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신체 변형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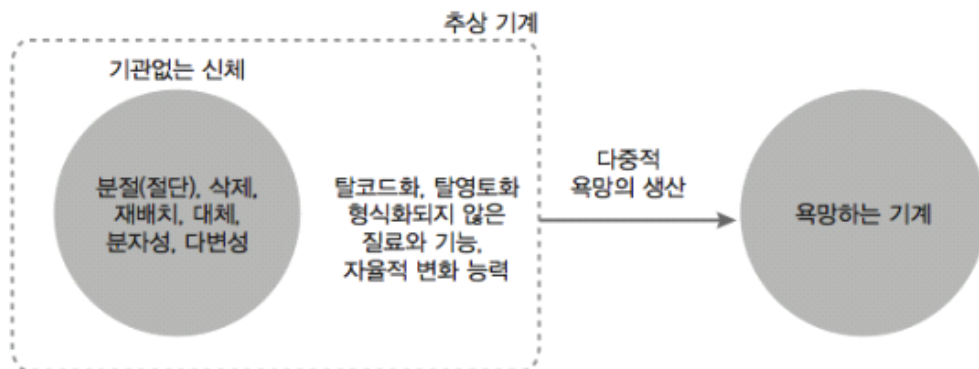
### Ⅲ. 현대 패션디자인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 변형

#### 1. 현대 패션디자인에서의 신체 변형

패션디자인은 신체와의 관계성, 사회적 통념으로

공감되는 이상적 신체의 표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을 통해 표현되는 신체는 일정한 시대와 사회의 이상적 인간과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체의 구현이다. 전통적으로 패션디자인은 신체 위에 구현되는 조형물로 인지되어왔고, 신체의 구조와 활동성을 드러내는 재현적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현신<sup>15)</sup>은 의상의 미적 기능을 각 시대별로 추구했던 이상적 신체구현과 신체의 장식과 형태를 통한 아름다움의 강조로 보았는데, 1970년대 이후 신체의 탈재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은혁<sup>16)</sup>은 신체를 즉각적으로 재현하는 문화현상이라고 정의하고 복식사는 인체비례의 재구성이며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의도적 왜곡 현상은 복식과 신체의 일치라는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복식의 해체와 재구성을 넘어서 패션에 나타나는 신체 왜곡 현상은 신체의 존재를 부정하며, 신체의 각 부위가 가진 상징성과 관계성을 모호하게 한다. 김혜영<sup>17)</sup>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현대 여성신체 이미지는 기존의 아름다운 신체에서 벗어나 탈고정적 신체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탈신체의 표현, 비분리적 신체 표현, 비정형적 신체표현의 범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탈신체란 인간 신체의 일부 특성을 변형, 왜곡시키는 것으로 팔을 없애거나 성적특질을 없애는 방법을 지칭하며, 비분리적 신체란 집합, 변형, 비대칭성 등을 통해 불구의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형적 신체는 신체의 위치, 형태



<그림 1>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 추상 기계, 욕망하는 기계의 개념

등을 바꾸는 방법을 통한 신체의 탈고정화 현상을 의미한다.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나는 신체변형과 관련된 연구로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이용한 신체변형 방법에 대한 연구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 파편화와 신체왜곡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sup>18)</sup> 등이 있다. 그 중 강현숙<sup>19)</sup>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변형 방법을 확대와 과장, 구속과 억압, 개방과 유동, 반전과 역설로 나누었고 임은혁<sup>20)</sup>은 탈신체적 디자인을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은유적 형태와 추상적 공간성으로 디자인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197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적 영향에 따라 패션디자인에서 신체의 재해석 및 탈고정화, 파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나는 신체변형의 주요 표현법으로는 신체왜곡, 신체의 파편화, 신체의 가변성 부여, 신체 혼성모방, 신체의 추상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신체변형을 통해 전통적 신체가치의 부정, 탈고정적 패션과 신체가치의 제안, 가변적 신체를 통한 가상성의 부여 등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패션일러스트레이션과 신체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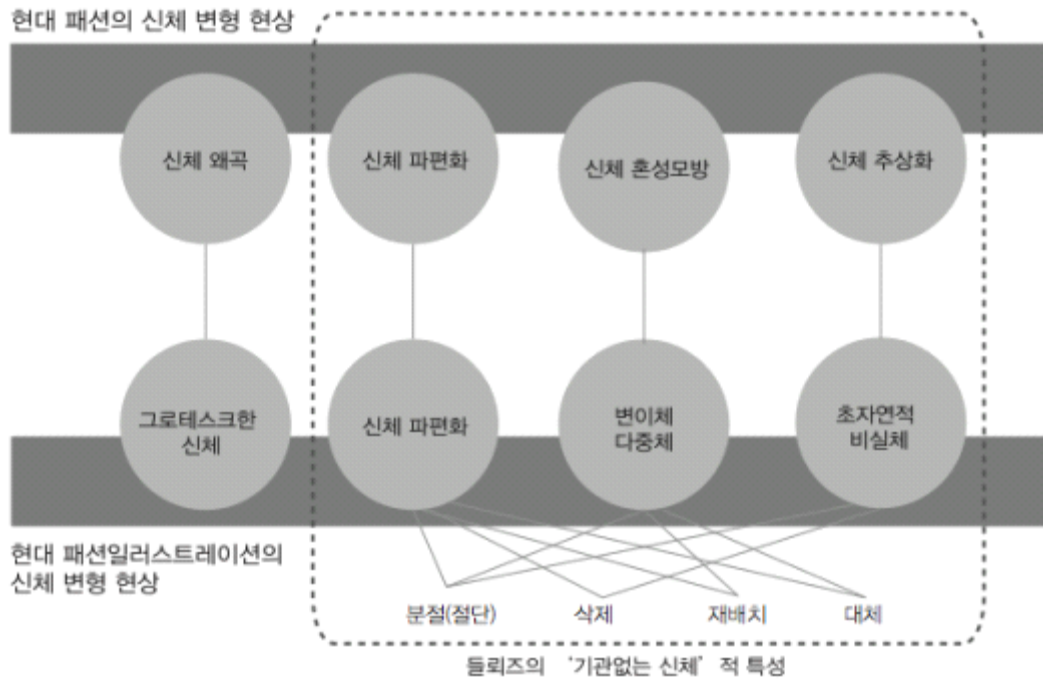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구체화 혹은 추상화된 패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패션 이미지의 예술적 구현과, 시대 및 작가의 미적 감수성의 종합적 발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21)</sup> 패션과 인체를 중심으로 한 작가의 독창적 조형의식의 표현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시대의 패션문화와 인체를 중심으로 한 신체미의 상징적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대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각 시대의 이상적 신체미를 드러내며 신체의 표현방법은 매체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 표현의 특성 중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문헌연구에서 유형화한 틀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특성인 절단, 삭제, 대체, 재배치 등의 특성을 분석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에 대한 연구 중 인간의 무의식과 욕망이 결합된 판타스틱 신체라는 개념으로 이상적 신체를 분석한 최정화<sup>22)</sup>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신체 유형을 SF적 여성 변이체, 투사분열에 의한 다중체 및 파편체, 인격화된 의사유기체, 초자연적 경계의 비실체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김순자<sup>23)</sup>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나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표현을 후기구조주의적 신체담론과 비교해 그로테스크한 신체, 파편화된 신체, 유사인간형의 표현, 포스트젠더 적 신체로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미적가치, 새로운 관계의 생성, 새로운 정체성의 창조 효과를 낸다고 하였다. 한은애<sup>24)</sup>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아르브뤼적 표현 기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중 다중적 이미지, 성의 파괴와 변형 등을 위한 은유와 왜곡의 신체표현을 그 사례로 보았으며, 장정임·이연희<sup>25)</sup>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유희적 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단순화와 과장을 통한 인체의 변형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 중 틀뢰즈의 기관없는 신체 특성인 절단, 삭제, 대체, 재배치와 같이 신체의 분자화를 의미하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변형 현상은 신체 혼성모방, 신체 파편화, 신체변형(왜곡), 초자연적 비실체화 현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난 신체 변형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패션의 신체 변형 현상 중 재현적 신체의 과장과 축소, 이미지적 해석인 신체 왜곡/ 그로테스크한 신체를 제외한 신체의 파편화, 혼성모방이나 변이체/다중체로서의 신체, 신체의 비물질 성을 중심으로 한 신체 추상화/ 비실체적 신체는 틀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에 기반한 신체변형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 2>는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신체 변형 현상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변형 현상의 유형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그 중 기관 없는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2〉 현대 패션과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신체변형 현상과 기관 없는 신체적 특성

#### IV.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기관 없는 신체’ 특성

본 연구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에 기반한 현대 패션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변형 특성을 중심으로 신체표현 형식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기관 없는 신체적 특성을 신체 파편화, 신체 혼성모방, 신체 추상화 현상으로 유형을 나누어 표현방법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기관 없는 신체적 관점에서의 사례들과 표현 형식, 의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신체 파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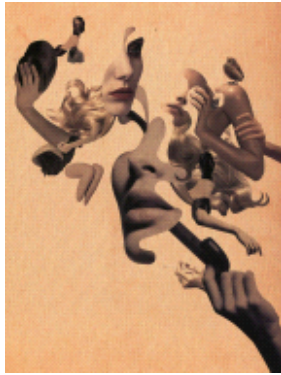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재현적 신체를 기반으로 했던 패션 이미지의 표현과 달리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파편화된 신체 현상들은 들뢰즈가 주장한 기관화 되지 않은 신체 의 분자화라는 특성과 맥을 같

이 하는 부분이다.

분절되거나 파편화된 신체는 부분적인 생략과 새로운 조합에 의한 재구성의 형식을 보여주며, 풀리쥬 방식으로 재조합된 신체 조각들은 재현적 신체로 다시 구성되기도 한다. 〈그림 3〉은 각기 절단된 신체들의 객관화와 재조합의 부자연스러움을 통해 하나의 유기체가 아닌 또 다른 개념의 신체를 제안하고 있으나, 절단된 부분들을 일반적인 신체의 형태로 다시 구성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표면적으로 기관화된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4〉는 단절되고 분자화 된 신체 부분들이 조합되지 않고 파편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체 부분들이 배치된 위치와 크기도 전통적 신체를 연상하는 형태 및 크기와 상이한 특성이 있다. 즉, 이 작품에서의 신체는 유기체로서 기관화되지 않는 분자화 된 신체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편화되고 단절된 신체의 재조합은 유기체로 인지되는 일반적인 신체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림 5〉는 파편화된 신체의 부분들만 반복적으로 중첩되고 결합된 이미지를



〈그림 3〉 Laird Borrelli (2004a),  
-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Ltd., p. 61.



〈그림 4〉 Victionary (2007),  
- *Fashion Unfolding*,  
Hongkong: Viction: workshop Ltd., p. 243.



〈그림 5〉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98.



〈그림 6〉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216.

보이고 있으며, 손, 다리만으로 구성된 신체를 통해 유기체로서의 신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림 6〉은 팔, 다리, 몸통의 삭제와 머리와 발이라는 극단적 신체의 조합을 통해 일반적 인체의 구조와 다른 새로운 기관으로써의 신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신체 파편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극단적이며, 선택적 기관으로 해석되는 새로운 신체 표현 방식의 경우 사진을 이용한 포토몽타주나 사실적 신체 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분절되고 파편화된 부분들이 신체의 분자임을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사실성과 극단적인 절단의 방식을 통해 파편화되고 분자화된 신체들은 욕망의 대상인 신체 파편들의 선별적 조합으로 재구성되며, 다원적 대상으로서 재조합되는 주관적 신체를 드러내고 있다.

## 2. 신체의 혼성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 변형 현상 중 하나는 혼성화로, 분절되고 파편화된 인간 신체가 다른 사물과 동물, 도형, 기계와의 혼성을 통해 일반적인 신체의 이미지와 기능을 넘어서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림 7〉은 성별이 각기 다른 분자화 된 신체 부분들이 합쳐진 신체로, 남녀라는 성별의 이분적 구조

를 가졌던 신체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더 이상 신체는 특정한 성의 상징적 기호로 역할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분자화된 신체 조각들의 혼성이라는 〈그림 7〉과 달리 〈그림 8〉은 인간의 몸과 동물의 혼성을 통해 인간을 넘어서는 차별적이며, 새로운 개념의 인간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동물 몸의 일부분과 결합되는 신체와 함께 식물의 일부분과 결합된 신체, 신체의 부분이 식물의 이미지로 대체되는 신체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그림 9, 10〉). 동·식물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과 신체가 결합되고 섞이는 혼성의 방법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외계의 불분명한 생명체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의 신체 표현방법도 나타나고 있다(〈그림 11〉).

동물, 식물, 불확실한 생명체와 결합되는 신체 이미지는 초월적이며, 차별적인 인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반해 텍스트와 결합된 신체 부분은 신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미지의 일부분으로 사용됨으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전형을 깨고 있다(〈그림 12〉).

〈그림 13〉은 인간 머리들과 기계가 결합된 변형된 신체로, 일반적 신체의 구조에서 벗어나, 분자화 되고 기계화된 인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그림 14〉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림 7〉 Laird Borrelli (2004 b),  
- *Fashion Illustration Now*, London: Thames & Hudson Ltd., p. 148.



〈그림 8〉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58.



〈그림 9〉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115.



〈그림 10〉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143.



〈그림 11〉 Marta R. Hidalgo (2010),  
- *The Sourcebook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p. 495.



〈그림 12〉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180.



〈그림 13〉 Laird Borrelli (2004 a),  
-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Ltd., p. 110.



〈그림 14〉 Laird Borrelli (2004 a),  
-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Ltd., p. 77.

나, 신체의 부분들이 기계로 대체되어 있는 사이보그와 같은 신체이다. 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신체로 인지되나 신체의 부분들이 기계로 대체된 기계화된 인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기계와 인체의 혼성 이미지의 표현은 간략화 된 동물, 식물, 불확실한 생명체와의 혼성 표현과 달리 사실적인 표현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신체의 추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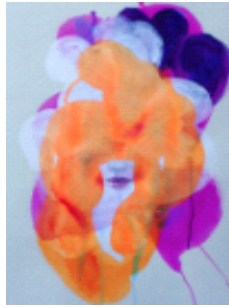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명확한 형태와 구조를 갖지 않는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신체 이미지는 일반적인 신체 구조나 형태와 달리 불명확하며, 일정한 방법으로 구조화되지 않는 추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5〉는 기본적인 인간의 신체를 묘사하거나, 드러내는 방법이 아닌 추상적 흔적들 위에 인체를





〈그림 15〉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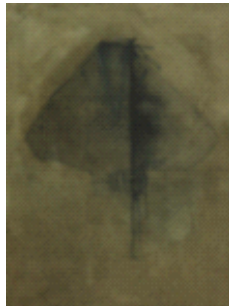
〈그림 16〉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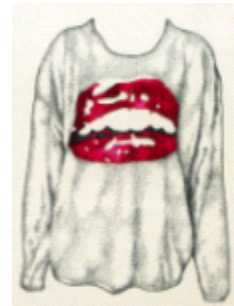
〈그림 17〉 Laird Borrelli (2004 a),  
-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Ltd, p. 89.



〈그림 18〉 Laird Borrelli (2004 a),  
-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Ltd., p. 154.



〈그림 19〉 Marta R. Hidalgo (2010),  
- *The Sourcebook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p. 588.



〈그림 20〉 Anneke Krull (2010),  
-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p. 229.

연상시킬 수 있는 머리카락의 이미지를 배치함으로써 추상적 흔적들의 이미지를 신체의 이미지로 연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흔적들을 신체의 이미지로 동일시하면서 관객들은 각기 다른 연상적 이미지와 형태를 유추하는 방식이다. 〈그림 16〉도 물감의 흐름과 흔적된 이미지를 사람의 얼굴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추상화된 신체를 인식한다는 면에서 〈그림 15〉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 17〉 역시 우연적 형태 위에 신체의 일부인 눈을 배치함으로써 연상효과를 통해 다른 부정형의 덩어리들을 신체의 일부로 유추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림 18〉은 신체를 기하학적인 도형들의 조합으로 대체하여 신체가 가진 유기체적 특성을 없애고 있으며 도형의 중첩에 의한 연상적 인체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신체는 가변적, 추상적 도형화의 해석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대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림 19, 20〉의 신체는 무형화 된 대상으로, 관객들은 구체적인 신체의 실체를 보지 못하지만 삭제된 신체를 옷의 형태와 주름, 그림자 등을 통해 신체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추상화되는 신체는 가변적이며 주관적

해석을 통해 인간의 기능과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한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 V. 기관 없는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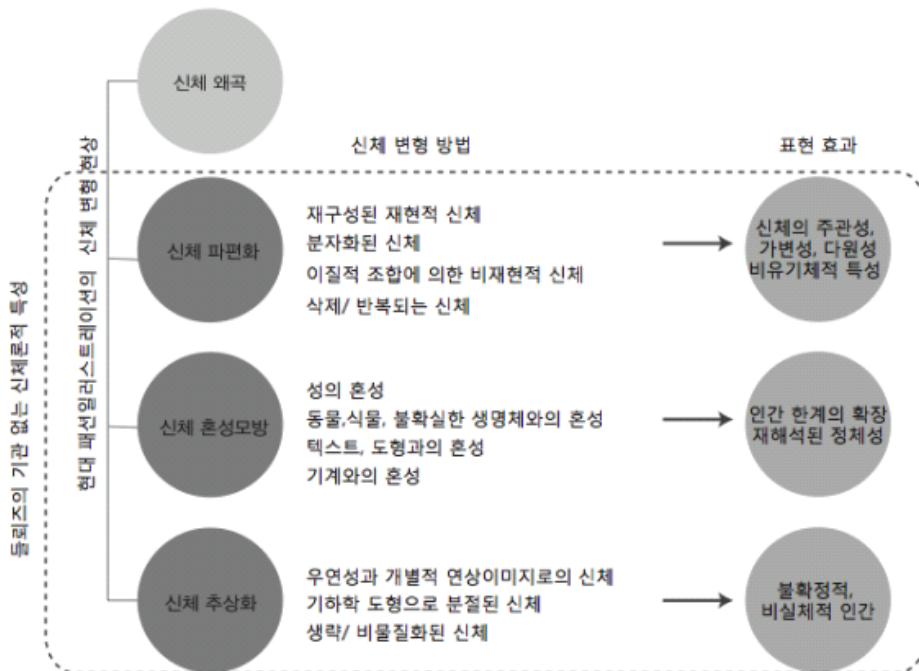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 표현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크게 신체 파편화, 신체 혼성모방, 신체 추상화 현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체 파편화에는 모자이크식으로 재구성되는 재현적 신체, 신체 특정 부위만을 남기는 분자화, 신체 부위들의 이질적 조합을 통한 비재현적 신체구성 등의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체는 분절화, 파편화 되고 주관적 가치에 따라 삭제, 중첩, 조합되는 가변적, 다원적 해석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신체 혼성모방과 관련하여서 분자화 된 신체는 남녀 성의 혼성, 인간과 동물, 식물, 불확실한 생명체와의 혼성, 텍스트, 도형 등과의 혼성, 기계와 인간의

혼성 등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혼성모방의 방식으로 확장되는 초월적 인간의 기능과 이미지의 확장 외에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인간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신체 추상화와 연관된 사례로는 물감 뿌리기, 홀리기와 플라쥬 등에 의한 우연적 흔적들을 신체로 연상시키는 방법, 기하학적 도형으로 재해석된 인체의 사용, 비물질적 대상으로 변형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로 표현되는 방법들이 나타났다. 우연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신체 이미지는 불확정적이며 비실체적인 인간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비물질적 표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신체 변형 현상은 궁극적으로 추상화된 현대 패션의 추구 이미지, 현대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체와 구도, 표현 기법의 변화보다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동반한다 할 수 있다. 특히, 패션 제품의 구체적 묘사보다 신체의 변형을 통한 강력한 이미지 소구에



〈그림 21〉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기관 없는 신체론적 측면의 신체변형 방법과 표현 효과

초점을 맞춤으로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가진 설명적, 보조적 특성보다 상징적, 주제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 변형 현상 중 기관 없는 신체론적 측면의 표현방법과 표현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 VI. 결론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당 시대의 패션 이미지와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심미적인 방법을 통해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드러나는 신체 이미지는 비실제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상적 신체미를 극대화하고 과장하여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시대별 신체관을 함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 이후 대두된 현대 신체론 중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은 리즘화된 디지털 기반의 현대 사회에서의 신체와 욕망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관점으로 현대 패션과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신체 변형 현상을 고찰하고,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신체 변형의 방법과 표현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신체 변형과 관련된 방법은 신체 왜곡, 신체 파편화, 신체 혼성모방, 신체 추상화 현상이었으며,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관점에서는 신체 파편화, 신체 혼성모방, 신체 추상화 현상이 나타났다. 신체 파편화는 분자화된 신체, 이질적 조합에 의한 주관적 신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체의 주관성, 가변성, 다원성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신체 혼성모방 현상은 성, 동·식물, 이미지, 기계와의 혼성을 통해 인간 한계를 확장하고, 인간 정체성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 추상화와 관련된 표현 방법은 우연적, 주관적 연상에 의한 신체, 도형화된 분절된 신체, 비물질화된 신체였으며 이를 통해 불확정적이며 비실제적인 인간 신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 변형을 통해 드러나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

이션의 특성은 인간에 대한 주관적이며 가변적 해석, 다면적이며 비유기체적인 이미지의 부여, 확장되는 인간의 정체성, 불확정적이며 실체가 없는 인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결과 나타난 파편화, 주관적 대상화, 혼성화, 추상화 되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는 현대 사회·문화의 리즘적, 노마드적, 가상적 특성과 맥을 같이하는 현상으로 현재의 사회·문화적 흐름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보이며, 패션의 기호적, 상징적 기능과 차별적인 심미성의 표현이라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체의 재해석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가변적, 불확정적, 추상화된 신체는 디지털 패션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과 흐름을 철학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흐름을 분석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중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에 기반하여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을 연구대상을 한정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출판된 주요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집들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전반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이 아닌 신체변형과 연계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흐름을 해석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1) Anneke Krull (2010), *The beautiful Illustrations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 Kevin Tallon (2008), *Digital Fashion Illustration*, London: Batsford.
- Laird Borrelli (2008), *Fashion Illustration by Fashion Designers*, London: Thames & Hudson Ltd.
- Laird Borrelli (2004 a),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Ltd.
- Laird Borrelli (2004 b), *Fashion Illustration Now*, London: Thames & Hudson Ltd.
- Marta R. Hidalgo (2010), *The Sourcebook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Martin Dawber (2004), *New Fashion Illustration*, London: Batsford.

- Martin Dawber (2007), *Big Book of Fashion Illustration*, London: Batsford.
- Victionary (2007), *Fashion Unfolding*, Hongkong: Viction: workshop Ltd.
- 2) 김상환, 홍준기 (2003), *라캉의 제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pp. 423-427.  
미셸 푸코,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오성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pp. 94-95.  
양희영, 이명희 (2010), 기관 없는 신체와 탈영토화된 패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복식문화연구*, 18(5), pp. 824-841.  
허정선 (2004), 패션아트와 신체의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이소희 (2009), 메를로 폰티와 푸코의 신체론 비교, *철학연구*, 37, p. 127.
  - 4) 양운덕 (2005), 욕망의 사회적 동학으로 조명하는 공적 합리성-라캉과 들뢰즈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9, pp. 221-267.  
김상환, 홍준기, *op. cit.*, p. 422.
  - 5) 신승철 (2003), 들뢰즈/가타리의 욕망론과 신체론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 6) Artaud, A., *The body is the body*, Roger McKeon 역 (1977), Semiotext, *Anti-Oedipus*, 2(3), p. 59.  
질 들뢰즈, 하태환 역 (2002), *감각의 논리*, 서울: 민음사, p. 57.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Mille plateaux*, 김재인 역 (2001),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p. 305.
  - 7) 양희영, 이명희, *op. cit.*, pp. 824-841.  
나일화 (2010), 무용예술의 미학적 논의에 있어서 질 들뢰즈 사상의 수용과 의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54-56.  
신승철, *op. cit.*, p. 51.
  - 8) 윤성우 (2006), 포스트구조주의의 욕망론, *프랑스학연구*, 36, p. 132.
  - 9) 보그, R., *Deleuze & Guattari*, 이정우 역(1995), *들뢰즈와 가타리*, 서울: 새길, p. 145.
  - 10) 오성근 (2005), 데카르트, 푸코, 들뢰즈의 육체, *성평등연구*, 9, p. 495.
  - 11)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op. cit.*, p. 971.
  - 12) 이진경 (2002), *노마디즘 1*, 서울: 휴머니스트, p. 131.
  - 13) 김석 (2006),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기계, *철학과 현상학 연구*, 29, pp. 173-202.
  - 14) 연효숙 (2006),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주의와 욕망론 그리고 여성적 주체, *한국여성철학*, 6, pp. 77-102.
  - 15) 박현신 (2003), 20세기 후기 패션의 신체부재와 탈체현 현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임은혁 (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2), *복식*, 56(9), pp. 66-82.
  - 17) 김혜영 (2001),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통해 본 몸 양식과 현대 패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임은혁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몸의 파편화, *복식*, 57(6), pp. 145-159.
  - 임은혁 (2006), *op. cit.*, pp. 66-82.
  - 최유진 (2009),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 연구, *복식*, 59(9), pp. 43-54.
  - 19) 강현숙 (2010), 21세기 초 패션에 나타난 body deformation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임은혁 (2006), *op. cit.*, p. 81.
  - 21) 이지현 (2009),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다중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4), pp. 644-645.
  - 22) 최정화 (2009),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6), pp. 867-877.
  - 23) 김순자 (2007), 후기구조주의적 신체론에 의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표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7), pp. 1052-1063.
  - 24) 한은애 (2006),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아르브뤼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장정임, 이연희 (2006),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유희적 표현, *복식문화연구*, 16(6), pp. 1142-1155.